

#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전통혼례식으로 멋 더해

## 약혼 후 10년만에 부부의 연 맺어... 오는 15~16일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

한옥의 본연의 멋과 그 속에서 이뤄진 생활과 문화를 알리는 축제에서 전통혼례 부부가 탄생했다.

9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전통혼례식이 진행됐다.

한옥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전통문화이자 삶의 큰일 중 하나인 전통혼례 재현에서 영암군민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

영암군민 김정의 신랑과 쩌티미린 신부가 약혼 후 10년 만에 정식으로 결혼했다.

이 부부는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쪽의 동양화가 연상되는 월출산 자락 아래 전통한옥을 병풍 삼아 자녀와 친인척, 마을 이웃과 비엔날레 관광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렸다.

풍물패의 길터주기 공연으로 분위기를 잡은 전통혼례는, 백마를 탄 신랑과 꽃가마를 탄 신부가 혼례청으로 들어서며 시작됐다.

하객들인 휴대폰 카메라로 한국 전통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의 모습을 담은 가운데, 김숙희 명창이 사랑가에 부부는 입맞춤으로 화답했다.

감사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폐백에서 하객들은 부부에게 밤·대추를 던져주며 백년해로를 빌었다.

신랑 김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통 혼례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주저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가족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는 일요일인 16일까지 이어진다.

구림공예고 학생, 지역작가 등과 '도마 만들기' '물레 체험' '우드모빌 제작' '자개 깎기' '전통문양 꾸미기' '한복 체험' 등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꾸며진다.



비엔날레 주제전시관에서는 주말 동안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다례 체험도 현장 예약으로 즐길 수 있다.

15일 오후 2시에는 '답장너머: 한옥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옥과 동아시아 전통가옥이 담고 있는 인문을 공유하는

국제학술포럼이 열린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주말 영암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의 전시와 체험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민관 상생 협력 빛났다!

### 함평군,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립 '순항'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립이 긴밀한 삼자 협력 아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원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스마트 생산공장으로, 2단계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2028년 1단계 사업이 완료 시 연간 약 53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입주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핵심 투자유치 성과이자 지역 상생모델로 평가되며, 군은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과 금호타이어, 함평군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술적 절차를 긴밀히 조율하며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이어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6일 사업의 시정점인 될 창고동 건축허가를 승인하며 본격적인 공장 건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6년 정련동과 타이어 공장동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타이어 생산을 목표로 한다.

군은 향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상생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상생형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전라남도과 함평군, 금호타이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라며 "기업과 행정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예술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한 '예술 더하기 수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기초 예술교육의 성과와 가능성을 공유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일 나주 문화예술회관과 나주정미소 일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한 기초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 더하기 수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예술교육의 결과물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나주시, 예술교육으로 여는 미래 인재 성장의 장

### 나주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더하기 수업 성과공유회' 성황

행사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개회사,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의 환영사,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 6개교 대표 학생들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빛누리초의 음악 공연, 한아름초의 무용 공연, 라온초의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나주정미소에서는 나주초의 영상 시사회, 빛가람초의 건축 모형 전시, 남평초의 팝업북 전시가 이어져 학생들의 1년간의 예술적 성

과를 생생히 선보였다.

'예술 더하기 수업'은 나주초, 남평초, 라온초, 빛가람초, 빛누리초, 한아름초 등 6개 초등학교가 참여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별로 연극, 건축, 미술, 음악, 문학, 영화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웠다.

또한 '작가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작가와의 교류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예술가의 진로와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

하며 폭넓은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빛가람동 지역 초등학교가 연중 운영했으며 원도심 초등학교는 하반기부터 참여했고 내년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 기금과 나주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6개교 모두에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1년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자녀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은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ON 세상을 안전하게 2025 취약계층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굴한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

## 장흥군, "ON 세상을 안전하게" 전기 안전 점검 실시

### 취약계층 150가구 대상... 생활 속 전기 설비 집중 점검

으로 한다.

전문 전기 시공업체는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노후 전선, 누전 차단기, 콘센트, 전등, 스위치 등 전기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 사고는 대부분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수리뿐만 안전을 위한 예방 점검과 생활 안전 수칙 교

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 요인을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이 11일 국립장성숲체원 산림교육센터에서 '금연 클리닉' 등록 주민과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메신저 위촉식 및 숲속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3개월과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꾸준히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 걸으며 금연 실천 다짐"

### 11일 '금연 메신저 위촉 및 숲속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먼저,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는 '금연 메신저' 위촉식에 이어 '담배 모형 자르기 퍼포먼스', 금연 엽서 쓰기

가 진행됐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산림 치유 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트레킹) ▲향기 요법(아

로마 테라피) ▲편백 도마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은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 무안군, 별도 신청 없이 11월 요금 자동 감면... 163가구 대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총 163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7,031천원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박상원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